“법련사, 미래문명 선도 도량 나아가자”

서울 법련사, 1월 5일 창건 50주년 기념법회

조계총림 방장 현봉 대종사
법어 통해 창건 의미 되새겨
법련화 보살 천도재 봉행도

법련화 보살 원력으로 창건돼
사찰 미술관, 서점, 찻집 효시
새로운 도심 포교 모델 보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총림 방장 현봉 대종사와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 등 주요 내빈이 창건 50주년 축하케이크를 자르는 모습.

조계총림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주지 진경 스님)가 창건 50주년을 맞았다. 경복궁 앞인 서울 종로구 사간동 한복판에 건립된 법련사는 지난 50년 동안 도심포교를 이끈 선구적인 도량이었다.

법련사의 창건은 신심 높은 한 우바이의 원력에서 시작됐다. 그 주인공은 신심 높은 불자로 잘 알려진 김법련화(1920~1973, 속명 김부전) 보살. 그녀는 효봉 스님을 친견하며 신심을 키웠고, 이는 도량 건립 원력으로 이어졌다. 1973년 11월 17일 법련화 보살은 종로에 있는 자신의 집과 재산을 송광사에 기증하겠다는 유언을 남겼고, 이에 송광사는 그녀가 내생에는 수행자로 태어나길 기원하며 사미니계를 수여했다. 법련화 보살은 계를 수지한 다음날인 11월 18일 타계했다.

이후 법련화 보살의 49재일인 1974년 1월 5일 서울 종로 사간동 법련사 개원법회가 봉행되며, 도심 포교 반세기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20년인 1995년, 시대 변화에 따른 사격의 일신이 필요한 시기가 왔을 때 법련사는 귀인이 되는 우바새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과 인연을 맺는다. 김 회장과의 인연으로 법련사의 현대식 도심포교 도량으로 사격을 일신하게 된다.

중창불사 이후 법련사는 파격적 포교 방법들이 시도됐다. 사찰 안에 미술관과 서점, 찻집들을 만든 것이다. 현재 종로구 삼청로 일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즐비한 문화의 거리가 됐지만, 법련사 불일미술관 개원 당시 문화전시공간은 법련사가 유일했다. 지금은 일반화된 사찰 서점, 찻집을 처음 시작한 것도 법련사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련사는 사찰 내 문화공간을 대중에게 제공하며, 불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문화포교의 새 모델을 제시한 선구자였다.

1월 5일 서울 법련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창건 50주년 기념 법회와 행사는 그동안 법련사가 이끈 반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기념법회는 창건을 이끈 법련화 보살의 천도재로 시작됐다. 법련사 대중은 높은 신심으로 도량 건립을 발원하며 자신의 사재를 송광사에 기증한 법련화 보살의 원력을 기리며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천도재 이후 이어진 기념법회에서는 조계총림 방장 현봉 대종사가 법석에 올라 법련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의미를 더했다.

법련사의 창건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되짚은 현봉 대종사는 “송광사가 어려울 때 서울 법련사 신도들의 보시로 호남 조계산에서도 정진을 잘 할 수 있었다. 구산 스님이 국제선원을 개원하셨을 때 법련사는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세계화의 관문이었고, 보조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법련사에서 보조어록을 강의하시면서 보조 국사의 통불교 사상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송광사와 법련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깊은 도량”이라며 “오늘 창건 50주년을 맞이해 효봉 스님, 구산 스님 그리고 현호 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현봉 대종사는 법련사가 미래 문명을 선도하는 부처님 도량으로 변모할 것도 당부했다. 대종사는 “이제는 새로운 문화 문명의 전환기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법련사가 이 같은 미래 문명에서 한국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지를 고민하고 혜안을 제시할 수 있는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법련화 보살의 보시 공덕을 기렸다. 진경 스님은 “법련화 보살의 유지는 법련사와 부전장학회로 이어졌다. 이 같은 공덕으로 지금의 우리가 법련사에서 열심히 기도·정진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련화 보살의 공덕을 선양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기도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법련사는 창건 50주년을 축하하는 축하케이크 절단식을 진행했으며, 80세 이상 신도들에게 스카프를 선물했다. 법회 후에는 심진 스님, 가수 강정아, 불일합창단 등의 문화공연도 진행됐다.

돈관 스님 “자승 대종사 ‘동국발전’ 유지 잇자”

학교법인 동국대 신년하례서
법인 기관 등 80여 명 참석
자승 대종사 공적 발표 · 추모


학교법인 동국대는 1월 3일 교내 정각원에서 신년하례를 봉행했다. 사진은 참석 대중이 상호 하례를 하고 있는 모습.

학교법인 동국대 구성원들이 지난해 11월 29일 원적에 든 동국대 건학위원회 고문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유지인 ‘동국발전 불교중흥’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는 1월 3일 교내 정각원에서 신년하례를 봉행했다. 신년하례법회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이상훈 이사, 김정훈 감사를 비롯해 윤재웅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 채석래 의료원장, 서울캠퍼스 정각원장 제정 스님, WISE캠퍼스 정각원장 철우 스님, 지정학 법인사무처장과 산하 학교장, 교무위원 등 학교 구성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사장 돈관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자승 대종사가 제시한 ‘동국발전 불교중흥’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돈관 스님은 “해봉당 자승 대종사께서는 ‘동국 발전이 한국불교의 중흥’이라는 말씀을 최초로 해주셨다. 또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서는 동국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며 “자승 대종사께서는 너무나 큰 화두를 던져주셨다. 이 화두를 풀어내는 것은 우리 후학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돈관 스님은 학교 발전을 위해 구성원 간 상호 화합과 소통, 종립학교로서 정체성 강화와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독려하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부처님 법 전하는 전법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신년하례에서는 자승 대종사에 대한 추모의식도 진행됐다. 추모의식은 돈관 스님의 헌향과 추모 삼배가 진행됐으며, 자승 대종사가 동국대에 남긴 공적 발표가 이뤄졌다.

윤재웅 총장은 공적 발표를 통해 자승 대종사의 공적으로 △동국대 약학대학 유치 △정문 진입로 개선 △로터스관 신축 부지 매입 △선서화전 수익금 등 기부금 18억원 희사 △단일대학 최대 규모 취업박람회 개최 도움 등 5가지를 소개했다.

윤 총장은 “5가지 공적은 자승 대종사가 베풀어주신 자애로움”이라며 “지대한 공덕 인연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들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이제는 대종사가 남긴 유훈을 토대로 동국 발전의 내용을 더욱 실속 있게 채워나가야 한다”고 밝힌 윤 총장은 “저를 비롯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동국의 구성원들은 동국대를 국내 8위를 넘어 글로벌 명문 사학으로 도약시키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이것이 대종사를 가장 진실하게 추모하고 깊은 헌신에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년하례는 서울캠퍼스 정각원장 제정 스님의 선창에 따라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제창하고 회향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진흥원 상반기 4대 공모사업 실시

원효학술상 · 대원청년불자상
불교기관지원 · 학술 · 콘텐츠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불교의 현대화·생활화·대중화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 진흥을 위해 2024년 상반기 4대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14회차를 맞은 ‘원효학술상’ 공모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등에서 현대사회, 문화에 대한 불교적 조명과 한국 철학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는 연구학자를 격려하고 인류문명의 창조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자부분 대상 저서(1명)에 3000만원, 특별상 저서(약간 명)에 1500만원을 지원한다. 석·박사 과정 학생부분 논저(약간 명)는 400~8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다.

‘제8기 대원청년 불자상·동아리상’ 공모는 시대 상황에 맞는 청년불자 인재 양성을 위해 진행된다. 개인 대학·대학원생에게 300만원이, 초등 불교동아리에 50만원, 중·고등 불교 동아리에 150만원, 대학·대학원생 불교 동아리에 150만원이 지급된다. 선정된 불교동아리 지도교수(교사)에게도 50만원을 별도 지원한다. 접수는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다.

‘제8기 불교기관·단체 지원사업’ 공모는 작지만 큰 원력을 펼치고 있는 숨어 있는 단체들을 적극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꾸준히 불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침체되고 있는 풀뿌리불교의 초석이 되도록 마련됐다. 1개 기관·단체별 150~500만원이 지원된다. 접수기간은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다.

‘제9기 대원불교 학술·콘텐츠’ 공모는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 진흥을 위해 불교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연구비를 지원한다. 불교학술부문에서는 저서 500~1200만원, 번역서 300~1000만원이 지원된다. 불교 콘텐츠 부문은 만화·동화·불교다큐멘터리·수행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선별 500~1000만원을 지원한다.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임은호 기자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를 검색하세요.

good bye 2023
안녕하세요. 동호 불교용품 물류센터입니다.
저희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전품목 10~30%, 승복/가방 50% 할인
기간 : 23년 12월 4일~24년 1월 31일
※ 택배비 포함된 가격입니다.
※ 십만원 이상 구매 시 인근 지역(포항,경주,영천) 배달 해드립니다.

삼베 ,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국산초
밀대 50개 63,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중국산
밀대 50개 55,000원
돈타래 40개 65,000원
원백 20개 65,000원

식물성 양초 특제품 (흰색,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20개 ····· 70,000원
5일초 24개 ····· 80,000원
3일초 40개 ····· 80,000원
1일초 100개 ····· 90,000원
15일초 12개 ····· 110,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 55,000원
15일 ····· 80,000원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칠보 개금 할인해 드립니다.(기존 불상 가능)
※불상 조각 조성합니다.(소불 500불이상 한불당 – 12,000원)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 대표번호 : 054-762-8200 ■ 문의전화 : 010-9748-3366
■ 계좌번호 :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 새마을 9003-2562-87257 (임건순) • 기업은행 010-2082-2100 (임건순)